스님들도 경영 배운다… '주지 학원' 인기

스님들 요청으로 2012년 개원
현재 수강생 스님들 500여 명
현대 경영학 관점서 운영위해
리더십 · 신도관리 등 배워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사찰 운영이 아닌, 현대 경영학의 시점서 사찰경영을 배우는 '미래의 주지학원'이 인기다. '교토신문'은 2월 1일 이 새로운 학원에 대해 보도했다.

'미래의 주지학원'은 2012년 문을 열었다. 당시 많은 스님들이 "사찰의 경영도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학원장 마츠모토 스님(38)은 도쿄대 철학과를 졸업한 후 인도로 유학을 떠나 MBA코스를 취득했다.

주지학원은 사찰관계자를 대상으로 연 6회의 강의와 토론을 통해 진행된다. 커리큘럼은 먼저 현대 경영학의 관점에서 사찰경영의 기초를 배운 후 각자 사찰의 존재의의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각자의 사찰에서 신도들의 의견을 모아 사찰의 가치를 생각하고 경영자로서 주지의 자리에 대한 자각,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과 방법론을 착실하게 익힌다. 사찰의 가치와 신도조직의 장단점, 강약점을 분석하는 스와트(Swot)와 법회 및 행사에 대한 마케팅 기법을 익히고 이를 직접 적용하는 것으로 마친다. 커리큘럼을 마치고나서도 수강생들이 다시 모여 실적을 발표하고 서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더욱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마츠모토 스님은 "세계와 사회현상을 직접 발로 뛰면서 우리가 어디에 서있는가, 어디를 향하는가, 그 속에서 사찰은 어떤 역할을 이룰 것인가, 이러한 시선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찰도, 출가자도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 주지학원의 수강생은 500여 명을 돌파해 종파와 지역, 연령을 넘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종단차원에서 주지학원의 노하우를 적용하는 곳도 생겼다. 사찰운영의 방법을 바꾸고 싶지만 방법을 알 수 없는 불교계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열린 수강생들의 사찰경영 계획발표회에서는 지역과 인구, 관광자원을 포함한 사찰의 외부환경과, 사찰이 가진 유무형의 가치, 앞으로의 비전과 사찰의 사명 등이 발표되었다. 보고서에는 명확한 수치까지 제시되어 있어 각 사찰에 적용하기 쉽게 했다.



'주지 학원'서 신도관리에 대한 사찰경영 수업을 듣고 있는 스님들. 사진출처=교토신문

이날 발표자였던 키리야마 스님(45)은 "근년 산사태로 본당이 무너졌다. 재건을 목표로 하였으나 단 9세대뿐인 신도회에 차마 부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주지학원을 수강하고선 '본당이 없는 장점'을 살려 모두가 한데 모일 수 있게 되었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본당에 대한 아이디어 응모를 제안함으로써 사찰에 새로운 인식을 불러 일으켰다"고 발표했다. 또 교토에서 온 야마시타 스님(38)은 "사찰의 불화를 이용한 스토리 전달, 캐릭터 상품의 개발, 지역상점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신도 이외의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쌓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복잡한 사회현상과 경제활동이 함께하는 현대사회 속에 종교에 대한 환경이 격변하고, 그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주지스님들의 새로운 경영법이 어떠한 결실을 맺게 될지.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된다.

박영빈 객원기자

불교를 종교로 보지 않는 서양…

"동양철학으로 전파됐기 때문"

종교로 불교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동양적 사유와 달리, 서양인들은 불교를 철학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서양 불교 첫 전파가 '새로운 동양철학'의 형태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기사가 나와 화제다.

미국 '듀랑고 헤럴드(The Durango Herald)'는 2월 17일 서양인들이 불교를 철학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했다. '듀랑고 헤럴드'는 "불교가 서양에 전해진 지 약 200여 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양인들은 불교를 철학으로만 생각할까? 아마도 서양에 처음 불교가 전해졌던 방식 때문일 것"이라며 서양에 불교가 전해진 과정을 설명했다.

불교가 미국에 전해진 것은 19세기 말이다. 당시 서양에는 동양의 신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다. 당시 저명한 철학자와 문학가등은 불교와 힌두교에 대한 문헌을 깊이 탐구했다. 이

'동양의 신비' 관심에
수행과 철학 먼저 소개

때 불교미술에 대한 문헌이 생겨났다. 종교학자였던 폴 카루스(Paul Carus)는 1892년 〈부처의 복음(The Gospel of Buddha)〉이라는 최초의 불교교리 문헌을 출판했다. 그리고 이듬해 시카코 만국박람회에서 열린 세계종교회의에서 일본의 선승인 샤쿠 소엔(釋宗演)과 스리랑카의 불교 개혁가 아나가리카 담마팔라(Anagarika Dharmapala)가 참석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교가 전해졌다.

'듀랑고 헤럴드'는 "불교는 당시 일반적이던 서양의 종교와 달리 유일신을 주장하지 않았다. 또한 합리적 인식을 주장했기 때문에 근대 서양인들은 불교를 철학으로 인식했다"며 "더욱이 당시 불교의 대표로 소개된 소엔과 담마팔라가 임제선과 위빠사나 수행을 중요시한 수행자였다는 점도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불교의 명상과 철학이 교학보다 먼저 소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의 불교 전파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듀랑고 헤럴드'는 "서양서 인기를 끄는 '명상 차(Zen tea)' '럭키 붓다 맥주(Lucky Buddha Beer)' 등은 불교를 상업적으로만 활용했다. 이국적이고 이색적인 것이 이목을 끌자 신비로운 불교를 차용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진형 기자

무분별 방생에 생태계 혼란 '골머리'

돈벌이 수단으로 의미 와전되기도

지난 2월 14일 중국의 '팽배신문'은 하이난성(海南省)에서 대규모 방생이 이어져 생태계 혼란이 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래 방생은 붙잡힌 동물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공덕을 짓는 행위이지만 실제로는 "생태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자칭 승려라고 하는 단체가 신도들로부터 돈을 모으는 수단이 되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제가 된 단체는 '남해복혜방생공승군(南海福慧放生供僧群)'이라는 이름의 단체로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3년간 방생을 이어나가면 모든 악업이 소멸된다" "방생을 통해 공덕을 짓고 극락에 왕생한다" 등의 문구로 방생을 광고해왔다. 그러나 광고 이외의 항목은 특정 회원 외에는 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블로그는 폐쇄됐다.

하이난 경찰은 "하이난 시에서 대규모 방생은 위법이며, 방생되는 동물 중엔 보호종 동물인 바닷거북들도 포함되어 있어 그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2월 8일 오전, 해상에서 실시된 방생을 조사한 경찰은 "이미 죽어 있는 동물들을 바다에 던지는 경우도 있었고 약 1천 마리의 생물이 한 번에 방생됐다. 이후 오후에도 같은 규모의 방생이 실시됐다"고 전했다.

방생에 사용된 동물들은 신자들이 낸 보시금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팽배신문이 입수한 남해복혜방생공승군의 2015년도 방생기록에는 가장 비싼 동물은 중형 바닷거북으로 한 마리에 약 60만원이고, 방생으로 얻은 소득의 최고치는 1일 8천 8백만 원을 달성한 날도 있었다. 신문은 "방생이 유행하게 되면서 이익이 창출되는 연계 고리가 생겨나고, 방생의 규모가 더욱 커졌다"고 논했다.

또 방생기록에 실려 있는 동물들 가운데엔 인공번식이 불가능한 동물들도 있어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방생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생동물은 포획 중에 스트레스로 죽는 경우가 많고, 방생하더라도 본래의 서식지가 아닌 장소에 풀어주어 생식에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방생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목소리는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2017년 1월 하이난성에서 시행된 '야생동물보호법'에 "야생동물을 방생할 경우 방생되는 동물과 방생되는 장소의 생물종이 공존 할 수 있어야한다"라고 지시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천여 년 전부터 방생이 유행했다. 지난해 9월엔 시내 공원에서 독사인 코브라가 방생돼 처벌되기도 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 성지 조캉사원 대형 화재

2월 17일, 원인 · 피해규모는 중국서 은폐




조캉사원 전경. 사진출처=티베트 비스타

◀트위터에 올라온 조캉사원의 화재 당시 모습 캡쳐.

티베트인들이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곳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티베트의 조캉사원(大昭寺)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수 시간만에 진화됐으나 중국 당국이 화재 원인은 물론 피해규모 등 사건 내역을 철저히 통제해 실제 피해정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월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영국 '더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0분 쯤 중국 시짱(西藏 ·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拉薩)의 조캉사원 뒤쪽에 있는 승려들 숙소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조캉사원은 황금색 지붕의 사원으로 티베트 예술의 세련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건물들이라는 평을 받아왔다. 건물 내부에는 신화와 전설 및 불교 고사를 묘사한 벽화가 가득 차 있으며 2001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바 있다.

'BBC'에 따르면 이번 화재 당시 목격자들은 수km떨어진 곳에서도 불길을 볼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관련 뉴스와 영상이 중국 웨이보(微博 · 중국 SNS) 등에서 공유됐지만, 당국이 이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중국중앙티비(CCTV)'는 화재 소식을 짧게 전하면서 전날 저녁까지 모두 진화됐고 인명 피해가 없다고만 알렸을 뿐 구체적인 화재 원인이나 경내 유물 피해 여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캉사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원후 7세기부터 지어지기 시작한 조캉사원은 부처님의 12살 때 모습을 형상화한 불상과 정교한 벽화 등을 보유하고 있고 2010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됐다. 티베트인들은 조캉사원에서 오체투지순례를 하는 것을 일생의 과제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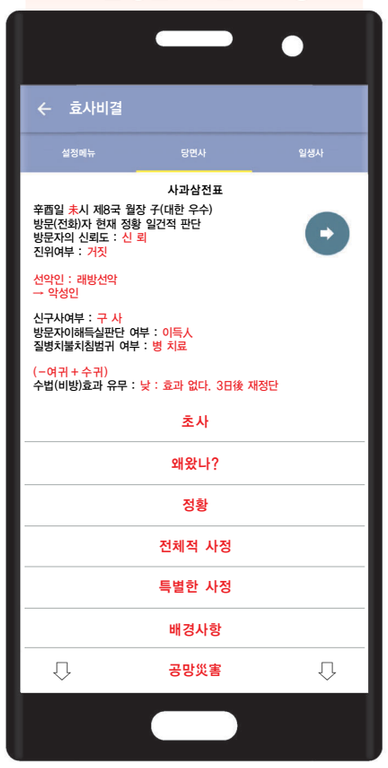
특히 조캉사원은 티베트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 발생이 잦아 중국 당국이 삼엄한 경계를 펴는 곳이다. 지난 2008년엔 승려들의 독립 요구 시위 끝에 공안이 유혈 진압에 나서면서 수백명의 인명피해를 부르기도 했다. 2012년에도 중국의 지배에 항의하는 티베트인 2명이 조캉사원 앞에서 분신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박진형 기자

휴대폰에 육임 CD프로그램 '효사비결 최신완결판'을 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안이든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당면사 27개 항목, 일생사 17개 항목을 시원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도 · 효과성 · 신속도 · 간편성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① 육임 당면사 즉단 27개 항목



② 육임 성부판단 24개항목과 12띠별 확정



원터치 기능

- 상대의 공 · 사적 비밀 사항 적시
- 귀신 · 부정 · 산소탈 침범 여부
- 질병 치 · 불치 · 오래끔 판단
- 천도 · 시식 · 기도 효과 유무
- 대적자 처신 방침
- 묻는 사항 24개 항목 띠별 성부 표시 등등

- 정 가 : ~~30만원~~ → 20만원 (3월 10일까지 할인)
- 계 좌 : 기업은행 024-086103-04-019 대한불교 천기종
- 설 치 : 입금 확인 후 10분 이내 본인 핸드폰에 설치됨
- 참 고 : 본인 실명으로 개통된 핸드폰
- 전 화 : 주 · 야 010-4500-5465 일과시간 02-738-8685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빌딩 22층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 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